

지역 소식통

고창군, 코로나19 극복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군민 재난지원금외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재난지원금은 2월중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정해 3월 중 신청 지급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3차녀 이상 다자녀 세대와 65세 이상 부양가족 세대에는 2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방법은 무기명 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제286회 고창군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설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28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의계축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부안군 경동요양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찬기 의장과 군의원들은 "코로나19로 시설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따뜻한 관심으로 이번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소외된 군민들에게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부안군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 받는 이웃을 살피는 의정 활동을 펼쳐며 모든 군민이 행복한 부안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 정읍시, 국내 최초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지원시설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에 국내 최초로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선정됨에 소재한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801㎡ 규모의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GMP 인증과 미생물 배양 장비, 정제·농축 장비, 건조·제형 장비 등을 갖추게

되며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미생물 분야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펫푸드부터 비료와 작물보호제 등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한다.

미생물 분야는 2020년 9월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사업 중 한 분야다. 시는 미생물, 동물용 의약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내 GMP 등급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생산시설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생물 분야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분야 사업을 정읍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한 관련 기업체 집적화로 정읍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와 협력으로 지난해 10월 선정된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과 실용화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240억)의 시너지 효과로 그린바이오 분야 사업 추진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와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정읍은 대한민국 미생물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 휴일지킴이 의료기관 · 약국 지정

### 정읍시,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 진료체계 가동

정읍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응급진료체계를 점검·관리하고 일반 환자나 응급환자 진료와 후송 등을 위한 '설 명절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설 명절 비상 진료 대책에는 정읍시 보건기관 39개소(보건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휴진)와 정읍아산병원 등 105개 의료기관, 약국 56개소를 포함해 200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아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동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보건기관 39개소와 의료기관 105개소가 일차별로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하고, 휴일지킴이 약국 56개소를 지정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며, 정읍아산병원은 24시간 운영한다.

아울러 보건소에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시민들에게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안내하고 운영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등 비상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는 정읍시보건소 (☎389-6137~8), 보건복지콜센터 129, 응급의료정보센터(홈페이지 www.gn.or.kr),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시민의 응급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응급 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안전한 예방접종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고창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간소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30만원 이하에 대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고창군은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30만원 이하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시·도지사가 피해보상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이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받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부분은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점국의 모든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상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와 보상 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창군은 28일 현재까지 총 148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보상 2건, 기각 4건과 나머지 142건이 심사 중에 있다.

고창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시행

령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군민의 편이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2022년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속 추진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약기준 해당)의 결과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망자위로금(1인당 5,000만원 정액)과 의료비(1인 최대 3,0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전자출입명부+방역패스, 안심백신패스 서비스 지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7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심백신패스'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심백신패스'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켜 개발한 백신접종 확인시스템으로, 방문자가 다중이용시설의 080 콜센터인 번호로 전화하면 통화 종료 후 곧바로 방문자의 휴대폰으로 접종 내역이 문자로 전송된다.

기존 QR체크인 방식은 기기에 QR코

드를 인식해야 하는데 한 번에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앱 실행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 불편이 컸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식당을 방문할 때 COV 회원가입 및 QR코드 사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 대안이 필요했다.

군은 기존 백신접종 확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KT와의 협업을 통해 '안심백신패스' 서비스 고유번호 회선 신청을 완료하였고,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로 조회 시 신청 업소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에 도입되는 안심콜 백신패스는 전화 한 통으로 전자출입등록과 접종여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방역패스 확인에 불편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안군이 요금을 부담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군민 고통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비상진료대책상황실 · 선별진료소 운영

고창군이 설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와 군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일(5일간)까지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560-8774)을 운영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병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 등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기간 요일별로 당직의료기관 11개소가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실시하며, 의약품 구입을 위한 약국 8개소도 일차별로 연휴 기간 중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돼 군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와 방역대책 비상근무를 위해 고창군 보건소에 선별진료소(560-8716)도 가동된다.

방역대책반은 역학조사반, 이송반, 선별진료소 근무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확진자 동선 포함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유증상자 등 발생시 신속히 검체채취, 역학조사, 자가격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정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